metro

메트로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제2985호 www.metroseoul.co.kr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Special p/24
스타들이 말하는 희망의 미래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제2985호 www.metroseoul.co.kr

Special p/26

2002–2014 '안방극장' 평행이론

메트로신문은 12년간의 무료종합일간지 1위를 지켜온 강점과 25만명의 홈페이지 가입자를 앞세운 홈페이지·모바일페이지 개편을 통해 온·오프라인 매체 강자로 우뚝 설 방침이다. /그래픽=최규춘 기자

'스마트 메트로신문' 재도약 시동

"출근길에 작은 행복과 여유"… 생활이 달라졌다
12년을 한결같이 독자에 다가가 숨쉬고 소통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스마트 메트로' 비전선언과 함께 제2의 도약에 나선다.

메트로신문은 지난 2002년 5월 31일 '독자를 위한 독자의 신문'을 추구하며 '무료 신문' 콘셉트로 독자와 처음 만났다. 지하철 출근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새로운 플랫폼으로 창간했다. 이후 12년간 많은 변화 속에서도 무료종합일간지 부문 1위를 굳건히 유지하며 독자에게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독자끼리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부분도 메트로신문만의 특징이다. 매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며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메트로신문은 독자의 니즈에 맞춰 온라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종이신문 제작을 이어가는 한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독자에게 다가가며 '스마트 메트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독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온·오프라인 결합 시너지 '쑥쑥'

창간 이후 최근까지 오프라인 매체의 최강자였던 메트로신문은 현재 미디어 수요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모바일로 진일보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홈페이지 1차 개편을 통해 온라인 강화에 나선데 이어 올해 1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2차 개편을 단행해 가독성을 높였다. 독자 콘텐츠도 대거 선보였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해 다양한 뉴스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 기존의 종이 신문을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결합 시너지를 톡톡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일 오전 출근길 지면신문을 통해 기사를 접하면서 지면의 한계로 내용을 모두 보지 못한 뉴스는 온라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 온라인의 강점은 독자에게 있다. 현재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가입자수는 25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종이신문과 온라인 가입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자가 참여하는 댓글도 크게 늘었다. 이는 메트로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에 독자 의견이 결합해 여론 형성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도언론·국민언론으로 거듭난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전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며 정도언론, 국민언론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메트로'를 표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고른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산업 생활 분야의 뉴스를 대폭 확충했다.

'이슈진단', '임의택의 車車車', '짠순이 주부경제학', '글로벌 메트로' 등 기획 중심의 콘텐츠는 메트로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뉴스로 생활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장을 개척해 언론 구조 변혁을 이끌었던 메트로신문은 앞으로도 온라인과의 결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미래 스마트 시대를 이끄는 미디어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무디스 "한국, 2018년 선진국 반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9일 "한국 경제는 오는 2018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과 같이 'Aa1',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번 부사장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고, 올해에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2018년께에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성장률 4%까지도 노려볼 만하나 이를 위해선 높은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수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2002년 국내 처음으로 무료 종합일간지를 발간한 메트로신문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 속에 온·오프라인 통합 매체로 거듭나며 창간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출근길 시민의 가장 친근한 벗인 메트로신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독자들의 응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미덕은 '무료'라는 정치인의 덕담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정치사회팀·연예스포츠팀

"출근 길 신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국을 대변하는 정론지로 발전하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입니다. 먼저 메트로신문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신문사는 우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소통의 광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세세한 일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바른 정론지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메트로신문의 철학 덕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가치있는 정보를 편하게 얻었습니다.

지금도 독자들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메트로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출근길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매체"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기쁨과 희망이 되었던 2002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듯 메트로신문이 월드컵 개막일인 5월 31일을 맞아 뜻 깊은 첫 시작을 알린지도 어느 덧 12년이 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이 출근길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귀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신문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민 문화생산·유통 거점 됐으면"

먼저 언론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는 메트로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메트로신문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문화생산과 유통의 핵심적 거점이 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시민이 메트로신문을 또 하나의 운동장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

"사랑받는 국민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길"

'메트로 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에 생활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메트로신문은 국민과 친근하고 가깝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애환에 귀기울이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국민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메트로신문 되길"

국회의원 홍문종입니다.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간 12주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메트로신문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과 노력을 잊지 마시고, 참된 언론을 향한 열정이 변치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면서, 늘 국민의 손안에 있는 메트로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

"질 높은 교육 소식 전해 주기 바래요"

메트로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신문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료종합일간지로서, 일반 독자들이 쉽고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생생한 교육관련 소식을 국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메트로신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귀숙 서울YWCA 회장

"120살까지 든든한 서울 시민의 친구 되세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감동의 메트로를 기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2002 월드컵과 함께 탄생한 메트로신문의 1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어 온 메트로 서울.

120살 생일을 맞을 때까지 따뜻하고 든든한 서울 시민의 친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강지원 변호사

"올바르고 발전적인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출근길 신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메트로 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30만의 부수를 발행하는 1등 무료 종합일간지로 대한민국의 언론 발전에 앞장서고 특히 진로와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은 대학생과 여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정직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신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지평 열어"

–각계 인사 메트로신문 창간12주년 축하 메시지

김수현

"많은 분들 관심 속 더 발전하는 신문 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항상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더 발전하는 메트로신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아라

"대한민국 대표 신문으로 거듭나길"

배우 고아라입니다. 학창시절 때 메트로의 기사를 즐겨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트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SBS 수목극 '너포위'의 어수선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하정우

"독자들에 사랑 받는 매체로 성장하길"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영화로 찾아뵐 때마다 만나지만 벌써 12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은 물론 공정성 있는 보도로 앞으로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매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유

"더 많은 정보와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로 돌아온 아이유입니다.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메트로신문은 출근길에 길동무가 되어주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예,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정보와 좋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메트로신문 화이팅!

"메트로신문은 나의 '행복미소'"

창간 12주년을 맞은 메트로신문의 열혈독자가 고마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트로신문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소중한 의견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건 메트로신문 때문이었습니다. 메트로신문 속에 담겨 있는 유익한 정보와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즐거운 이야기들로 작은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지난 12년은 너무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메트로신문의 애독자로서 바라는 점을 적어 볼까 합니다.

1.red (보다 멀리 더욱 많은 곳에서!)

메트로신문을 만나보는 시간과 장소, 지역이 한정돼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농촌 등에서도 메트로신문을 만나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2.orange(파격적으로)

좀 더 작고 앙증맞은 포켓북 사이즈이거나 좁아지고 길어진 슬림한 모양이라면 다른 일간지들과 비교해 눈에 띄고 독자들이 읽기도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1면도 뉴스가 아닌 만화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판 등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yellow(산뜻함을 갖자!)

독자들이 보내온 코믹 사진 등 웃을 수 있는 코너가 좀 더 많이 실린다면 좋겠습니다.

4.green(풋풋함을 갖자!)

가끔은 8페이지의 뉴스를 15페이지 쯤에 숨겨 놓고 애독자 퀴즈 등으로 낸다면 재미있는 메트로신문이 될 것 같네요.

5.blue(시원함을 주자!)

막연한 제테크 기사보다 회사 옆 커피전문점의 할인쿠폰, 영화 티켓 등을 준다면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6.dark blue(불변하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양질의 기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메트로신문 속에 가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7.purple(마치며)

빨·주·노·초·파·남·보. 세상 모든 빛을 다 감싸 안은 무지개처럼 메트로신문이 세상 모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D: tpgns82

노조전임 급여제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11조의 2에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노총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증인은 '청와대 비서실'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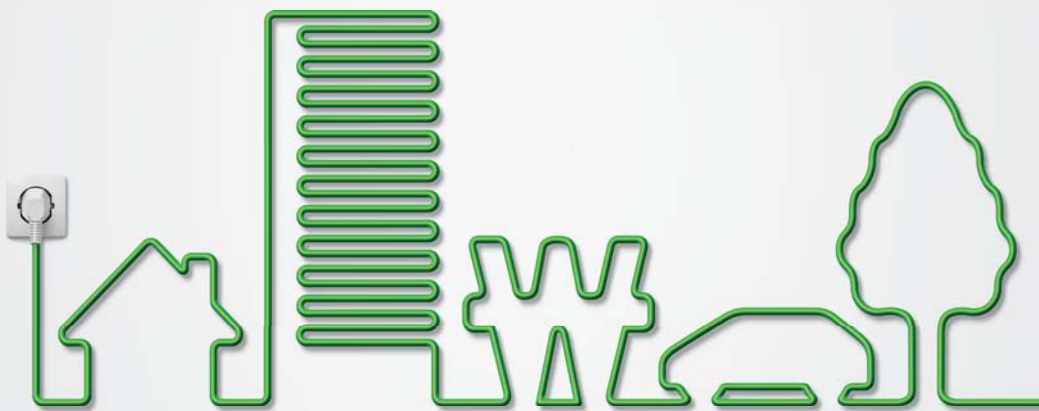
여야는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후 8시 세월호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연 뒤 오후 국회 본회의도 잇따라 열어 국조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실무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대상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에 대해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어 실제로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해 보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는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조계획서 합의 내용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먼저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오늘 내일 사전투표 하세요! SNS '표현해주세요'에서 만난 청년들이 6·4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역 앞에서 30일과 31일에 시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노란 우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수학여행 재개 6월 말 결정"

정부, 안전을 담보로 중지조치 해제 검토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취했던 수학여행 중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수학여행의 존폐를 포함해 수학여행의 안전담보 방안,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에 수학여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중지시켰고 일선 교원의 절반가량이 수학여행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여행, 숙박, 운송 업계가 애로를 보이자 수학여행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이어 건전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기업들에 투자 집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하면서 국민에게 소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 관련 Q&A

Q1. 치과임플란트는 몇 세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보험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시술시(의원기준) 급여적용 금액이 119만원(행위수가101만원, 치료재료 18만원)으로 59만5000원(본인부담율 50% 적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2. 잇몸이 약해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할 경우,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뼈 이식수술에 소용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부담 해야 합니다.

Q3. 부분틀니를 해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부분틀니를 해 보험혜택을 받았어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ㅊ

첫걸음

[First Step]

명 ❶ 목적지를 향하여 처음 내딛는 걸음 ❷ 어떤 일의 시작을 일컫는 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산업의
내일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인재를 키워나가는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진행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에서 표지석을 덮은 천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땅에 광복군 표지석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어 양국 역사공조 재확인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이 2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시안에서 자오정융 산시성 당서기 등을 만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요청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이다.

1942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했던 시안시 창안구 두취진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왕리샤 산시성 부성장 등 중국정부 관계자 외에도 박승춘 보훈처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완성된 광복군 표지석은 높이 1.8m, 폭 1.1m로,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졌다. 특히 광복군 표지석 후면에는 광복군의 항일투쟁 활약상 등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새겨졌다.

중국의 광복군 표지석 설치로 양국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이어 또다시 항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역사공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김민준기자

유병언 그림자만 쫓는 검·경

일주일째 행방 묘연… 구원파 신도 지원도 걸림돌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고 있다.

유씨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 소재 송치재휴게소 인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혔지만 여전히 유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미 추적을 피해 순천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4일간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잠시 머물렀던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별장을 중심으로 반경 20㎞ 내 20여 개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문·검색을 벌였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순천 톨게이트를 지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이번에도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은신했던 유씨를 놓친 바 있다. 25일에는 별장을 급습했지만 유씨와 도피생활을 함께 했던 구원파 신도 신모(33·여)씨를 체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는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영어로 답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의 예상 도주경로가 발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27일 전남 보성에서 구원파 신도인 60대 여성 김모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체포되면서 유씨의 도피를 돕는 구원파 신도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특히 구원파가 "10만 성도들을 전부 내줘도 유 전 회장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후끈 후끈' 도심 서울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씁쓸한 '국민 검사'의 퇴장

기자 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민심 수습책으로 내놓은 '안대희 국무총리'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 전 대법관은 정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개혁을 추진할 총리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역대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대쪽 이미지의 '국민 검사' 칭호를 얻었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청렴성'이 강한 사람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변호사 개업 후 고액 수익 논란, 전관예우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무엇보다 5개월에 16억원, 하루 1000만원 꼴로 벌어들인 그의 수입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어설픈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동안 '수첩인사', '밀봉인사' 등 인사 관련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총체적 무능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전 검증에서 구멍을 드러낸 청와대는 더 이상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새 총리 후보 선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기억하고 기존 방식을 밑바닥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시설 안전관리 민간책임 강화

재난법 개정안 입법예고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특히 백화점, 극장,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윤다혜기자 ydh@

요양병원 사망자 21명 부검

질식 외 사망 외적요인 조사

경찰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전원의 시신을 부검한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전담반은 29일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부검을 통해 질식 외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에게 신경안정제를 과다투입하고 손을 묶은 흔적도 있다"는 일부 유가족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데도 부검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병원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2007년 개원 이후 병원 운영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환자 유치와 관리 등에 위법은 없었는지, 화재 당시 근무상황을 분석해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뉴스&뉴스

화물차 적재 기준도 깐깐하게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차종별·화물별·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 방법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수도권 초미세먼지 예보

●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운용한다. 예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5시 공개한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대기질'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해 제공한다.

써도 써도
끝없이 나오는
LTE 데이터 무제한

olleh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2012.26 (-4.80)
코스닥 549.61 (-0.35)
금리(국고채 3년) 2.81 (-0.01)
환율(원·달러) 1017.50 (-3.50)

하반기 분양시장, 변화없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은 하반기 분양시장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자사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5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분양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9.8%(320명)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는 답변이 21.5%(115명)로 뒤를 이었고, '상반기보다 좋을 것'은 18.7%(100명)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첨 이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205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택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 22.4%(120명), '가수요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 17.9%(96명),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 증가' 13.1%(70명), '신평면 도입으로 거주 편리성 증가' 8.2%(44명) 순이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새 자동차 문화 체험하세요"

현대차, 모터 스튜디오

서울 성수대교 남단을 지나 좀 더 남쪽으로 달리면 도산공원 사거리가 나온다.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도산대로에는 주요 수입차 전시장이 즐비하다. 여기에는 국내 수입차시장 1, 2위를 다투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선두를 다투는 브랜드인 만큼 두 전시장은 언제나 방문객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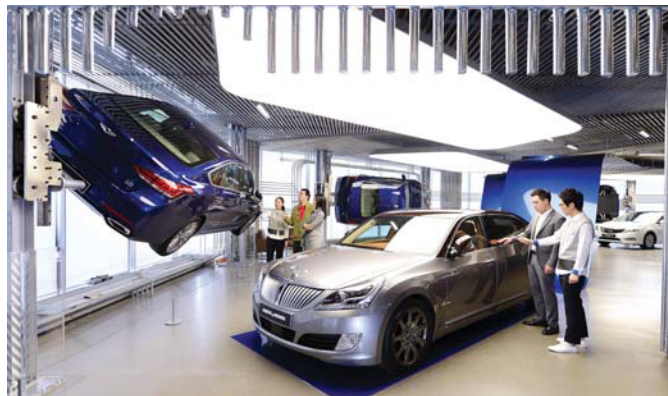
벤츠 전시장 대각선 방향에는 한 때 인피니티 전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판매 부진에 따라 빌딩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했고, 현대차는 이곳에 지난 9일 '모터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이곳은 단순히 차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빌딩 전체가 자동차를 테마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장소인데, 현대차가 최초로 시도하는 브랜드 체험관이다. '모터스튜디오'라는 이름에는 자동차 회사로서 현대차의 정체성을 담은 '모터(Motor)'와 창조, 실험의 공간을 상징하는 '스튜디오(Studio)'를 합해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창조하고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1층에서는 '구루(Guru)'를 만나게 된다. '구루'는 산스크리스트어(語)로 '한 분야의 전문가, 스승'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복장부터 범상치 않다. 자동차 시트와 헤드라이너(천장), 에어백, 너트 등을 사용한 유니폼이 자동차기업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다.

천장에는 현대제철에서 만든 강관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철 생산부터 완성차 생산을 아우르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엘리베이터 문은 전기 아연도금 처리된 특수강판을 사용했다. 역시 현대제철이 만들었다.

2층에는 라이브러리와 카페가 마련돼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2500여권의 서적이 구비돼 있는데,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 전문서적이 많다. 미국과 영국 서적이 70%가량 차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여나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층부터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3층은 에쿠스, 제네시스, 그랜저가 전시된 프리미엄 카가 모여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모터쇼에서 선보였던 '에쿠스 by 에르메스'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4층에는 인기차종인 쏘나타와 싼타페, 아반떼가 전시돼 있다.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키즈 라운지' 덕분이기도 하다. 이곳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찾고 있어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층은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다. i40와 i30, 벨로스터가 전시된 곳이고, i20 WRC 경주차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카탈로그로만 볼 수 있었던 튜닝 용품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튜익스 라운지'가 눈에 띈다. 튜익스 부품을 장착하고 싶었지만 실물을 못 봐서 안타까웠던 오너라면 이곳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中企 전용 코넥스시장 뜬다

50개 상장사 설명회…7월 종합대표지수 발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사들이 개장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한 자리에 모였다. 거래소는 코넥스가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오는 7월 '코넥스종합지수'(가칭)라는 종합대표지수를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IR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코넥스시장 51개 상장사 중에서 50곳이 참가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 중 19곳은 이번에 처음으로 IR에 참가했다.

이날 코넥스 상장사들은 회사별로 부스를 마련해 기관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과 소그룹 미팅을 가졌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지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200여명가량이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코넥스시장은 지난 4월 11일 출범 후 9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하고 상장사도 초기 21곳에서 현재 51곳으로 늘어나는 등 순조롭게 성장 중이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회사 이름보다 개별 브랜드나 제품으로 친숙한 경우가 많다. 이에 상장사들은 기술력과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 등을 거듭 강조했다.

코넥스 시가총액 1위의 바이오신약 개발업체인 아이진은 당뇨망막증, 자궁경부함 예방 백신, 결핵 예방 백신 등 주요 기술과 다국적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이러닝 업체인 유비온은 자체 개발한 교육시스템 소프트웨어(SW)를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의 교육부로부터 수주받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IR에 참가한 상장사들은 코넥스에서 몸집을 키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원일 아이진 대표이사는 "올 하반기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기존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들을 고려할 때, 코스닥에 상장하면 현재 시총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바른 변화·착한 ICT 노믹스로 선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미래 30년 ICT 발전방향 제시

"미래30년의 I.C.T.는 '정보통신 기술'의 뜻을 넘어 '혁신(Innovation), 협력(Cooperation), 새로운 전환(Transformation)'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ICT 발전 대토론회' 기조발표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0년이라는 역사 속에 세계 통신 산업을 선도해왔다"며 미래 30년 ICT 발전방향에 대한 화두로 'ICT 노믹스'를 제시했다.

하성민 사장이 이날 미래 30년의 화두로 제시한 'ICT 노믹스'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모든 사물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디지털화된 산업들이 ICT를 바탕으로 융합·재편됨으로써 ICT가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뜻한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ICT 발전 대토론회' 기조발표에서 미래 30년 ICT 발전방향에 대한 화두로 'ICT 노믹스'를 제시했다. /SK텔레콤 제공

◆'ICT 코리아' 경쟁력 강화 기여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는 'ICT 노믹스' 시대를 맞아 SK텔레콤은 세계 최고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ICT 코리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미래 지향점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최적화된 가치 전달 ▲사회와 함께 나누는 가치 공유 등 'ICT노믹스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SK텔레콤은 ICT 노믹스의 구체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초고속, 초연결적인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시대를 여는 세계 최초의 이동사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5G 이동통신은 4세대(LTE) 이동통신의 1000배 이상 속도를 기대하는 기술이다. 100Gbps 속도가 목표다.

SK텔레콤은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단순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를 넘어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 등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과 타 산업 융합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가 상용화되면 장비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이후 7년간 국내에서만 55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기고 58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ICT 노믹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새로운 솔루션을 조기에 구체화 하기로 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케어 및 보안 분야와 비콘 등 근거리 네트워크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선포한 '행복동행'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ICT 노믹스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확대는 물론, 스타트업 사업자 지원 등 동반 성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빠른 변화' 넘어 '바른 변화'로!

SK텔레콤은 ICT 노믹스의 가치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장기 관점의 '착한 ICT 노믹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성민 사장은 "ICT 노믹스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변화는 '더 빠른 변화'가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라며 "맹목적 성장을 위한 기술 발전 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기술 발전, 곧 '착한 ICT 노믹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착한 ICT 노믹스' 프로젝트는 크게 ▲ICT 노믹스의 부작용 연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착한 ICT 연구소' 설립 ▲ICT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착한 ICT 캠페인' 전개 ▲'전통산업 스마트화'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착한 ICT 연구소'는 ICT 노믹스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학, 기관과 연계해 사이버 중독, 개인정보보호 등 ICT 노믹스의 부작용과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ICT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ICT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착한 ICT 전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운영하고 '착한 스마트폰 사용' 앱을 개발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유도한다. 절제 시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혜택을 SK텔레콤이 사회에 기부하는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은 농수산업 등 1차 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도록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양식장 등 '전통산업 스마트화'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하 사장은 "무엇을 새롭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협력 체계가 필요한지, 나아가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물이 99.9도까지 변화가 없다가 100도에 이르러서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장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ICT 노믹스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경상수지 26개월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1억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2012년에 2월 24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월 38억1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2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4월 경상 흑자 규모는 전달보다 1억7000만 달러(2.2%)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억7000만 달러(56.5%) 늘었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가 3월(79억7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106억5000만 달러다.

수출이 567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 증가했고, 수입은 460억7000만 달러로 0.9%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더불어 사는 토양 만듭니다"

효성, 굿윌스토어로 장애인 자립지원…'나눔봉사단' 운영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개척해 가며 더불어 살 수 있는 토양 마련에 힘쓰고 있다"-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

효성이 금전기부나 노동력 제공 등 일회성 활동을 넘어, CSE(Creating Social Eco-system)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가 꼽힌다.

굿윌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해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효성은 국내 기업 최초로 지난 2013년 10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매장을 열었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명이 일하고 있다.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은 오픈 반년 만에 매출액이 1억원을 넘었고, 3만 여점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효성은 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효성나눔봉사단'은 매 월 4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찾아 산행·갯벌체험 등 장애아동의 현장 체험학습 등을 돕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공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효성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내동초등학교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금속탐지기 등의 과학원리를 교육하는 '주니어공학교실'을 열었다.

주니어공학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미래 이공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효성이 진행해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10년간 매년 2회 이상씩 2000여명이 넘는 학생에게 과학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경남지역 50개교 5000여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효성은 전사적으로 매년 두 번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과 함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효성 제공

▲창원지역 초·중·고등학교 도서지원 ▲교사·학생·학부모의 독서·토론을 도모하는 독서골든벨 후원 ▲효성 주요 공장 인근 방과후 학습활동 지원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박람회에 참가해 체험공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송해 선생님이 돈 맡기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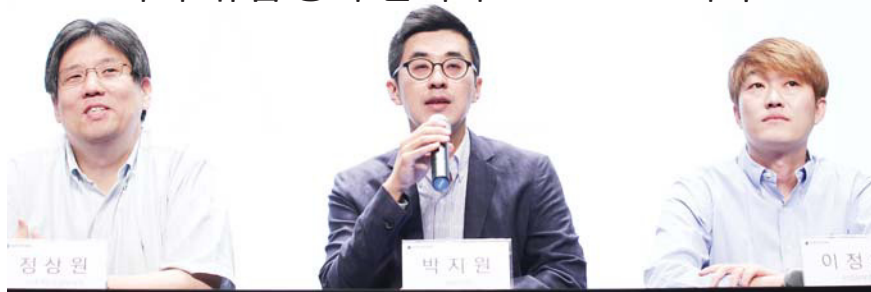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박지원 넥슨 대표 "차별화가 개발 기준" 북미·유럽 공략 본격화… M&A도 지속

29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지원(가운데) 넥슨코리아 대표이사가 정상원(왼쪽) 신규개발총괄 부사장, 이정헌(오른쪽) 사업본부장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세상에 없는 게임 만든다"

"남들이 하지 않는 '넥슨다운 게임'으로 유저에게 다가가겠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을 이끌게 된 박지원 대표는 29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전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4'에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김 창업자는 "과거 황금기 시절에 나온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을 제외하고 10년간 성공을 거둔 신작 게임이 없다"며 박 대표에게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는 "잘되는 게임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넥슨 만의 장점"이라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유저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정상원 신규개발 총괄 부사장도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데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잉여 인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팀 조직을 바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전략도 밝혔다.

박 대표는 "1996년 해외지사를 처음 설립한 이후 글로벌 공략을 지속해온 덕분에 현재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며 "다만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투자해온 북미·유럽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규제로 사기 저하 심각

인수합병(M&A)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넥슨이 M&A에만 관심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넥슨의 외형적 성장과 저작권 획득 주요 수단이었다"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미국·유럽의 다양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삼성, 메시와 함께 '갤럭시 11' 캠페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S5'와 함께 하는 '갤럭시 11' 캠페인을 전개한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청용 등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스타로 구성된 '갤럭시 11'은 축구와 갤럭시 등 혁신 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스포테인먼트 마케팅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선발된 '갤럭시 11' 선수들이 '갤럭시 S5' '기어 2' '기어 핏'을 활용해 트레이닝을 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고, 다음달 '갤럭시 11'이 외계인과 지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맞춰 다음달 30일까지 '갤럭시 S5'를 구매한 고객에게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청용, 웨인 루니 선수의 모습이 담긴 4종의 '갤럭시 11' 보호 커버 중 하나를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또 30일부터 '갤럭시 S5' 캠페인 사이트(www.samsung.com/sec/galaxys5)에서 '갤럭시 11' 전체 스토리가 담긴 캠페인 영상을 감상한 후,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로 공유하고 응원 댓글을 남긴 참가자 중 11명에게 한국 대표팀 선수단 단복인 고급 정장을, 300명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를 증정한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5'와 함께 하는 '갤럭시 11'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동 코엑스 갤럭시존에서 '갤럭시 11' 캠페인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축구팬과 소비자들이 갤럭시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세계적인 축구스타들로 구성된 '갤럭시 11' 대표팀이 외계인과의 한판 승부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짜릿한 순간을 '갤럭시 S5'와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균기자 ksgit@

"LG U+·SKT 추가 영업정지 추후 결론"

방통위, 29일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당시인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다만 당시 방통위 2기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겨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향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방통위 3기에 일임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청구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7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참고해서 논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이기주·김재홍 상임위원은 ▲다음달 10일 전후 ▲7월 초 ▲추후 결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 추가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사실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어지는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부터 사실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통크게 쏜다 올레tv모바일이 인기 영화와 미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통큰 FREE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레tv모바일 제공

대우건설 해외 마케팅, 효과 '만점'

대우건설이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활발한 부동산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인력을 따로 배치하는가 하면,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를 찾아 먼 길을 달려가기도 한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을 연 '용산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영어와 중국어권 사용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 부스를 마련했다. 또 견본주택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프리젠테이션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 중이다.

해당 단지가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용산에 위치했다는 점을 감안, 언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을 수요층으로 흡수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용산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개관 이래 약 30팀 정도의 외국인이 분양 상담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를 위해 가족 단위로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관사로 이용하려는 대사관이나 외국계 기업의 문의도 더러 있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피스텔 당첨자 중 확실하게 파악된 외국 이름만 5명이고, 한국계 외국인이나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와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는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해외에 마케팅팀을 꾸린 것으로 유명하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국제도시에 짓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인 만큼, 해외에서도 충분한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미국을 찾아 뉴욕과 LA를 돌며 수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각각 60여 가구와 60여 실의 해외 판매에 성공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뉴스는 그래도 종이신문!"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로 종이신문이 위기를 겪고 있다. 심지어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종이신문과 관련한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반전이 숨어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의 득세로 종이신문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신문이 뉴스산업의 터줏대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작성한 '2014 뉴미디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미디어업계 전체 매출(630억 달러) 가운데 신문의 비중은 61%(3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주간신문까지 포함할 경우 신문 매출 비중은 67%에 이른다. 지역TV뉴스(14%) 케이블뉴스(8%) 주간신문(5%)이 뒤를 이었다.

신문사들이 앞다퉈 디지털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뉴욕타임스의 전체 매출(15억 8000만 달러) 가운데 75%가 종이신문에서 나왔다.

물론 국내 신문 시장과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국내에서도 종이신문의 미래가 어둡지 않음을 일러주는 의미있는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정 소비자가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꼭 봐야 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TV를 꼽았으며 이어 인터넷(27%), 신문(21%), 라디오(3%)가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신문에 대한 선호도는 30대(15%)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20~24%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국갤럽 측은 "인터넷 보급 이후에도 신문은 고정 선호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

문광부 조사 열독률 8위 랭크

홈페이지·모바일 개편도 '호평'

메트로신문, 독자 사랑 받고 진화중

국내 최대 무료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이 2002년 창간 이래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온·오프라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체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가장 보편적인 열독률의 경우 메트로신문은 전국 70개 종합지 중 당당히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메트로신문은 2.3%로 8위에 랭크됐다. 서울·경기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배포만으로 이 같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열독률 조사를 지하철 출퇴근자로 한정할 경우 메트로신문은 빅3로 수직상승한다.

같은 기간 한국리서치(HRC) 열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트로신문은 6.2%(이하 서울 기준)로 A신문(11.7%), B신문(9.6%)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정보 전달이 중요해짐에 따라 메트로신문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개편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72명에게 기사 보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종이신문이 32%, 인터넷·PC 29%, 스마트폰·태블릿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8%로 나타났다.

메트로신문은 신문, 인터넷, 모바일 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언론선호도'에서 메트로신문은 37.3%의 선호도로 6년째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20~40대 출퇴근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되며 고른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야구·모터쇼·월드컵 등 특별판 '풍성'

메트로는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지난 3월 잠실, 부산, 대구 등 전 야구장에 '프로야구 특별판'을 배포했다. 새로운 야구여신 김선신·윤태진 아나운서의 인터뷰와 올해 프로야구 시즌 전망, 전체적인 프로야구 규칙 변화 등을 소개하며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30일에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현장에서 '모터쇼 특별판'이 배포된다. 특별판에는 다양한 신차 관련 정보와 최근 이슈인 오토캠핑 관련기사가 듬뿍 담겨있다.

다음달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월드컵 특별판'도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월드컵 특별판은 올해 우리 국가대표팀의 전망과 선수들, 현지 경기장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실릴 계획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에 맞춘 특별판이 독자들을 찾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행사나 시즌에 맞춘 특별판이 독자를 찾아간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새로운 캠핑메카…강원도 인제

메트로신문-인제군, 광활 규모·최상 시설 개발 나섰다

강원 인제군 북설악 용대관광지가 국내 캠핑메카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 3월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맺은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그리고 용대리마을은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최근 용대관광지에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아웃도어 리조트인 '캠핑 빌리지' 조성을 본격 시작했다.

또 인제군과 메트로신문사는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용대관광지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활한 규모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

축구장 32개 규모의 7만 여평(약 23만 1000㎡) 캠핑 빌리지는 인제군의 천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 문화단지다.

현재 용대관광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인제군이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힐링 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충분한 여가 생활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리조트 수준의 숯가마·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카트경기장, 증기기관차 시설도 마련된다.

서비스도 차별화한 숙박과 식사 등 기반시설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식 부페와 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완비된다.

이밖에도 수상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아마추어 천문대와 영어캠프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연계 마케팅 추진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은 또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특화된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봄에는 고로쇠축제·진동계곡 산나물축제, 여름의 내린천 래프팅·동해 해수욕장 셔틀버스 운영한다. 가을에는 설악산 트레킹과 12선녀탕 등반, 겨울의 황태축제와 빙어축제, 아이언웨이,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 등 계절별 축제와 행사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다.

황태·오미자·풋고추·콩·곰취 등 '인제 5대 명품'과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숙박 연계 상품과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와의 사업 제휴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온라인 매체서도 강자 '급부상'

지난해 4월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가 1차 개편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2차 개편작업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차 개편을 통해 부족했던 뉴스 집중도를 개선했고, 특화된 기획코너 집중도를 높이며 독자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주력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뉴스 제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메트로신문의 각종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섹션별 주요기사를 한 눈에!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였다. 이 같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것이 뉴스, 경제, 국제, 라이프,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등 섹션별 주요 기사를 레이어 메뉴를 통해 한 눈에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각 섹션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각 섹션 별 주요 뉴스를 볼 수 있다.

그만큼 독자들은 스크롤을 내려 훑어 보지 않아도 실시간 주요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에 중요 기사와 함께 '핫이슈' 코너를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핫이슈는 최근 ▲세월호 참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북한 무인기 발견 ▲북한 도발 등 전 사회적 중요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 독자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최상단 검색창 아래 주요 검색어 이슈를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마우스 하나만으로 주요 뉴스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검색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반응하는 와이드형 페이지를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독자들은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스페셜기획 코너를 펼쳐볼 수 있고 이를 홈페이지 하단에 몰아서 볼 수도 있다. 스페셜기획 코너에는 'IT카페', '인포그래픽', '꼼꼼IT리뷰', '시승기', '짠순이 주부경제학', '임의택의 車車車', '글로벌 이코노미', '맛있는 레시피' 등 메트로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기획 코너는 새로운 기사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해당 기획이 최상단에 배치돼 독자들이 최신 기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보다 알찬 뉴스콘텐츠 '주목'

메트로신문은 개편 이후 다양하고 알찬 뉴스콘텐츠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각종 현안을 심층진단하는 '이슈진단'은 각 분야 담당 기자들이 주요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전한다.

'꼼꼼IT리뷰'는 IT 전문 기자들이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오디오·비디오 부문 등 각종 IT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특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해당 제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세세하게 전달해 독자들의 현명한 IT기기 구입 방법을 안내한다.

임의택 경제산업부 자동차 전문기자가 직접 차량을 시승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평점과 한 줄 평가를 소개하는 '임의택의 車車車'는 이미 독자에게 널리 알려진 인기 코너다. 일반적인 시승기와 달리 기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평점 및 한 줄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차량 구입을 돕는다.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짠순이 주부 경제학' 코너는 기자가 주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실생활 속 틈새 재테크를 소개하는 뉴스콘텐츠다. 초보 주부들에게 필요한 살림 고수들의 비법을 전수하고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통해 사랑을 받고 있다.

자취생활을 하고 있거나 음식에 소질이 없다면 '맛있는 레시피' 코너를 참고하면 좋다. 메트로신문은 메뉴판닷컴과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전수한다. 다양한 요리 만들기도 '맛있는 레시피' 코너 하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독자 댓글 일 평균 100여 건

홈페이지 개편 이후 독자의 의견도 활발해졌다. 최근 독자의 댓글도 일평균 80~100건에 달한다.

포털사이트 뉴스가 아닌 단일 매체의 홈페이지에서 이처럼 독자의 의견이 활발히 오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독자는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평가,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독자들의 댓글을 통한 여론의 장 형성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현재 25만명에 달하는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가입자가 기반이 됐다.

앞으로도 메트로신문은 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모바일 뉴스도 메트로신문이 '정통'

모바일페이지 UI·UX 개선

메트로신문은 최근 모바일 페이지(m.metroseoul.co.kr)도 개선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메트로신문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모바일 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개편에선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PC용 홈페이지 주요 상단 기사를 모바일 페이지 상단에 그대로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상단에는 한줄 속보도 배치돼 있어 최근 실시간 기사 제목을 볼 수 있고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바로 이동된다.

메뉴별 간격도 최적화했다. 적절한 줄간격 배치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가벼운 터치로 보기 원하는 기사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밖에 메트로칼럼, 글로벌메트로, 스타인터뷰, 날씨, 포토뉴스 등 다양한 메뉴의 기사를 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UI)을 채택했다.

주요뉴스 하단에 배치된 메트로칼럼, 글로벌메트로, 스타인터뷰 등은 메트로신문의 색깔을 보여주는 주요 코너들이다.

메트로칼럼은 임경선의 캣우먼,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유병필의 청론탁설 등 다양한 외부 부서별 데스크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뉴스룸에서,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전하는 기자수첩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메트로는 전세계 27개국 220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해외 메트로신문에 실리는 주요 뉴스를 번역해 제공하는 코너다. 다른 매체와 차별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메트로신문만의 독자적인 해외뉴스를 접할 수 있다.

스타인터뷰는 유명 배우, 가수 등 스타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스타가 되기까지 거쳐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향후 메트로신문은 모바일 페이지의 UI와 사용자경험(UX)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제작·배포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드럭스토어’ 유통 강자 자리잡을까

다양한 헬스앤뷰티 제품 체험…신규 출시 경쟁

대학생 김태희(25·여)씨는 드럭스토어를 자주 방문한다. 화장품은 물론 음료수나 과자 같은 먹거리, 간단한 약, 생활용품까지 모두 한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모션도 자주 해 편의점이나 일반 화장품 매장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학교 앞에 드럭스토어가 무려 네 개나 있다 보니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김씨처럼 드럭스토어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업계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드럭스토어’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건강보조식품·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음료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약국과 편의점을 합쳐놓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 초창기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금지로 인해 약품보다는 건강·미용용품을 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헬스앤뷰티(Health&Beauty)스토어의 개념에 가깝게 자리 잡았다.

드럭스토어의 인기 비결은 일반 브랜드숍보다 제품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으로 성장세 더뎌질듯

우리나라 드럭스토어 업계는 1999년 CJ올리브영이 최초로 매장을 연 후 더블유스토어, GS왓슨스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점차 성장을 거듭하더니 최근에는 유통채널 강자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지난해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까지 1000억 원을 밑돌던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 규모는 2012년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2007년 이후 연평균 47%정도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존 유통채널이 포화상태로 성장세가 더뎠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로 개척을 고민하던 유통 대기업들이 드럭스토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가 롭스(사진) 브랜드를 론칭했고 홈플러스도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신규 업체가 등장하면서 올해 드럭스토어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블유스토어를 운영 중인 코오롱웰케어는 올해 대대적인 추가 출점을 예고했다. 지난해 새 점포를 열지 않았던 신세계 이마트의 분스 역시 올해 새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 진입 2년차인 막내 롭스 역시 올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수의 회사들이 업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드럭스토어 시장의 성장세는 조금 더뎌지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전체 시장 규모는 7000억원으로 2012년까지의 성장률에 비해 성장 속도가 크게 줄었다.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 역시 지난해 3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추가 출점 비용이 늘어났고 판촉비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드럭스토어를 변종 SSM으로 간주하는 추세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오히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맥주 마니아들 줄을 서시오”

국내 업체, 수입산 벤치마킹 신제품 경쟁 불붙어

프리미엄 맥주 전쟁이 한창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판매 비중이 전체 맥주의 20~30%를 차지하며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맥주 맛에 눈 뜬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국내 맥주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국내 프리미엄 맥주 시장 3각 경쟁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정통 영국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맥주 ‘에일스톤(ALE STONE)’을 출시했다. 오비맥주 자체 브랜드명으로 에일맥주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 역시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에일맥주를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퀸즈에일’을 지난 9월 선보였다.

롯데주류는 유통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자체 브랜드 ‘클라우드(Kloud)’를 선보이며 맥주 시장에 진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오리지널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해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맥주의 깊고 풍부한 맛을 재현했다고 한다.

◆크래프트 맥주 열풍…희소 맥주도 선봬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외식업계 역시 메뉴에 어울리는 크래프트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크래프트 맥주’란 프리미엄 맥주 중에서도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의미한다. 획일화된 맥주 맛이 아닌 다양한 맛과 개성 있는 라벨 등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사로잡고 있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지자체 여러 곳에서 소규모 맥주양조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크래프트

맥주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미 한남동, 홍대와 가로수길 등 핫플레이스에는 크래프트 맥주를 파는 전문 펍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맥파이·더부스·크래프트 웍스·발리 슈퍼스토어 등의 크래프트 맥주 하우스는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젊은 층에 인기가 뜨겁다.

패밀리 레스토랑도 트렌드에 가세했다. 대표적으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시즌 한정메뉴 립&쿠라이즈 출시와 함께 정통 크래프트 맥주 4종을 출시했다.

오리온이 운영하는 마켓오 역시 작년 8월 국내 마이크로 브루어리에서 제조 생산한 크래프트 맥주인 에일 맥주 4종을 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희귀 수제맥주들을 맛볼 수 있는 갤러리형 수제맥주 전문 매장도 생겨났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쓰리매너티’는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수제맥주만 약 40여종이 판매된다. 특히 13개 종류는 희소성을 인정받을 만큼 명품 맥주로 손꼽히는 라인업을 자랑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정영일기자 prms@

각양각색 드럭스토어…소비자 ‘유혹’

기본 틀은 같지만 업체마다 조금씩 특성 달라

드럭스토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마다 조금씩 차별을 두고 자기만의 색깔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플래그십스토어로 브랜드 가치를 알리거나 일부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독점 브랜드 유치로 승부수를 던진다.

CJ올리브영은 1999년 업계 최초로 매장을 오픈한 이래 2014년 5월 현재 총 37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뷰티 브랜드부터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까지 1만 여 개 이상의 다양하고 트렌디한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자유로운 테스트와 비교구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이런 올리브영의 성격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매장의 모델이 됐다.

올리브영은 ‘겟잇뷰티 존’ ‘XTM존’ ‘바버샵 코너’ 등 14개의 콘셉트 존으로 구성된 업계 최대 규모 플래그십 스토어 ‘올리브영 라이프스타일 체험센터’를 운영한다. 단순히 전시·판매하는 헬스앤뷰티스토어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오롱웰케어에서 운영하는 더블유스토어는 약사들이 운영해 ‘드럭스토어’란 명칭에 가장 걸맞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드럭스토어들이 헬스앤뷰티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약국을 중심으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제안한다.

실제로 의약품과 약국부외품의 구입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약국과 달리

약사와 1대1 맞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인 약국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업계 막내인 롭스(LOHB's)는 'Love Health&Beauty Store'의 약자로 헬스와 뷰티의 만남을 강조한다. 지난해 5월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 업체다.

기존 업체와 달리 헬스 제품의 비중을 강화해 헬스·비타민·피트니스·트래블·호신용품 등의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다. 백화점 유통망을 갖고 있는 롯데의 유통채널답게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스틸라’ ‘블리스’ ‘OPI’ ‘르네휘테르’ 등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독특하다.

/정혜인기자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웃음 넘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에
애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누고 손잡아주고 배려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애경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푸마, 세련된 용품으로 캠핑족 '유혹'

시즌 앞두고 다양한 제품 구비, 선명한 색상·패턴 접목 디자인 요소 강화

캠핑업체들이 저마다 신상품을 내놓고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손준호 LF 스포츠아웃도어 사업부장 상무는 "예전에는 단순히 등산복에 국한됐던 아웃도어 제품 출시 경향은 최근 2~3년 새, 레저스포츠의 다변화된 아이템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며 "우수한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까지 가미해 고객들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LF의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는 본격 캠핑 시즌을 앞두고 다채로운 기능성 용품을 제안했다. 이 브랜드는 캠핑에 필요한 모든 제품 라인을 구비하고 있어 오토캠핑, 가족여행, 트레킹, 전문 산악인용 등 상황에 맞게 용품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도 특징이다.

◆스타일에 맞는 텐트, 휴가지도 '내집처럼'

로간9(Logan 9)은 2013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초대형 텐트로 이너룸과 주방, 거실을 나뉘어져 10인 대가족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캠핑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쉘터다.

이 텐트는 대칭형 구조로 양 옆에 대형 출입구가 있어 드나듦이 편하고 이너룸을 2개 설치해 두 가족이나 그룹 캠핑 시에도 쾌적한 실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로간7(Logan7·**사진 왼쪽**)은 양 측면에 한국 전통의 곡선을 적용한 출입구를 둬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도 고려했다. 측면 출입구는 개폐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전체를 열면 중앙에 프레임이 없어 확트인 시야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손쉬운 설치를 위해 아일렛과 버클방식을 도입된 로간S(LoganS)는 탑루프를 설치하지 않고 그늘막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립형 돔텐트다. 이너룸을 포함해 9.2kg으로 자사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가벼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크닉세트부터 올인원까지 '간편하게'

가벼운 피크닉을 위한 세트 구성 상품도 눈길을 끈다.

독특한 디자인의 스플레시 텐트(**오른쪽**)는 4면이 메쉬창으로 구성돼 통풍이 잘되며 상부에 차광용 패널을 둬 차광효과가 뛰어나다.

레저 시트는 방수와 습기차단 기능이 뛰어나며 15ℓ 소프트 쿨러는 3중 처리된 구조로 방시기능이 탁월하다.

콤팩트 키친 테이블은 수납 선반을 비롯해 올인원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사용하는 타 캠핑용품 브랜드와 달리 자작나무를 사용한 테이블로 소비자가 호흡하는 공기의 질까지 생각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더위 쫓는' 던킨도너츠 아이스 음료

최고급 원두, 다양한 재료로 인기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면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식음료업체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던킨도너츠는 매년 다양한 아이스 음료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름 아이스 음료로 인기인 던킨도너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뛰어난 바디감과 신선도를 자랑한다. 던킨도너츠는 2009년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 중 최초로 국내에 커피 로스팅 센터를 설립했다. 커피감정사 '큐그레이더'가 생두 구매부터 로스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며 매년 산지를 직접 방문해 생두를 구입하는 직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스프레소 샷에 얼음,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만든 '던카치노'(**사진 왼쪽**)도 다양한 종류를 선보이고 있다. 던카치노는 에스프레소 분말이나 시럽으로 맛을 낸 기존 프라페와 달리 리얼 에스프레소 샷을 직접 넣은 제품으로 캐러멜·카푸치노 중 선택할 수 있다.

◆스무디·쿨라타 등 음료도 선봬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사과스무디' '자두코코 쿨라타'(**오른쪽**)를 출시했다. 사과스무디는 국내산 사과로 만든 제품으로 사과의 향긋한 향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자두코코 쿨라타는 자두 쿨라타 속에 빨간 젤리를 더한 제품이다. 이외에도 던킨도너츠에서는 '청포도 봉봉 쿨라타' '딸기스무디' 등 다양한 아이스 음료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던킨도너츠는 아이스 음료 7잔 구매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자두코코 쿨라타 1잔을 무료로 증정하는 '아이스 음료 7+1'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해피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해피포인트 적립이 없는 타행사·타쿠폰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음료 무료쿠폰은 8월 5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결혼식 스탠포드 호텔 어때요

비수기 파격 프로모션 진행

결혼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수기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알찬 비수기 시즌을 노리는 현명한 커플들이 늘고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있는 스탠포드 호텔은 비수기 결혼 커플에게 연회·웨딩 비용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스탠포드 '쿨 서머 웨딩 프로모션'

우선 7월과 8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겐 '쿨 서머 웨딩 프로모션'이 있다.

보증 인원 25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메뉴 가격은 인삼 비프 버거 스테이크 코스가 3만8000원, 등심 스테이크 코스가 4만원, 너비아니 코스가 4만2000원이다.

또 프로모션 메뉴 외 기존 메뉴를 선택하면 10% 할인과 함께 음·주류 30% 할인 혜택을 주고 생화 꽃 장식을 19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0만원 상당의 웨딩 연출과 웨딩 메뉴 무료 시식(6명), 웰컴 드링크 허니문 객실 1박도 무료로 제공된다.

◆스탠포드 '오픈 3주년 기념 웨딩 프로모션'

'오픈 3주년 기념 하반기 웨딩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식사 10% 할인, 테이블 당 음료 4캔과 잔치국수무료, 음·주류 30% 할인 혜택이 있다.

게다가 허니문 객실 1박이 무료이며 공항 무료 샌딩 서비스와 커플 아로마 테라피 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예식 비용 결제 시 호텔과 제휴를 맺은 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100만원권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 20커플을 대상으로 하며, 250명 이상의 보증 인원을 계약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문의: 02)6016-0020 /황재용기자 hsoul38@

오픈 3주년 기념 스페셜 웨딩 프로모션

연회예약실 Tel. 02 6016 0020

대 상: 2014.10.01~11.30 결혼하는 선착순 20 커플 (보증인원 250명 이상)

특전사항: 식사 10% 할인, 잔치국수 무료, 음료 테이블당 4캔 무료, 음료 30% 할인, 객실 1박 무료 제공, 공항 전송 무료 서비스, 2인 무료 테라피 서비스

카페 스탠포드 라이브 뷔페 오픈

예약 및 문의 Tel. 02 6016 0080

/스탠포드 호텔 제공

관절·인대 질환, 신경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도수 치료로 끝

부작용 줄이고 회복 빨라 관절염까지 치료 가능 환자의 회복 돕는 맞춤형 치료 병행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골프 엘보우) 및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꾸 질환이 재발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S양과 같은 방송에 출현 중인 가수 K씨 및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외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한 후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실시했다. 또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했다. 치료 후 부어있고 염증이 심한 인대와 신경은 회복되고 통증도 호전됐다.

이처럼 4년전부터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했던 유전자 줄기세포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 신경통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자가혈 줄기세포 인대 증식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씨는 주사 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레이저 초음파 치료, 인대 및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2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통합 진단 시스템 통해 척추 치료 선진화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환자에 맞는 치료를 실시한다. 관절 및 인대 질환은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허리 또는 목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 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고 눌린 신경 압박을 감소시키는 도수치료를 한다. 또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그리고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와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과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치료 센터, 연골·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승주(오른쪽)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초여름 피부 보호 예방이 최선

자외선 차단이 우선…평소에도 미백 필요

일찍 찾아온 더위 만큼 피부가 걱정되는 계절이다.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햇빛 속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자외선 기미·주근깨 유발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것은 물론 기미와 주근깨를 유발하고 피부 나이를 불린다.

그중 생활 자외선으로 불리는 자외선A 는 1년 내내 피부를 공격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 긴 파장 자외선A는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주며 창문 유리까지 뚫고 침투한다. 또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일광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B는 역시 피부의 적이다.

게다가 여름에는 여드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외선에 대항하려는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피부 보호를 위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며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를 자극해 여드름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외선과 함께 물놀이도 조심해야 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수영장이나 해변에서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직접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 피부를

투과하는 자외선 강도가 3~4배 높아져 일광화상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평소 자기 피부에 맞는 천연 제품을 이용해 피부 미백에 신경 써야 하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됐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일광화상 예방을 위해선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마다 발라줘야 한다. 피부가 붉어지고 쓰리며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냉찜질로 피부를 식혀줘야 한다. 아울러 수영장에 다녀온 후 가렵고 따끔거리는 피부염 증상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면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비염, 한방 통비환으로 치료

곽계원 백동한의원 원장 12년 노하우로 환자 진료

알레르기성 비염은 몸 속 면역체계 이상으로 비강 내의 점막과 비갑개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 주요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 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이나 미세먼지와 황사가 발생하면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증가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한약재를 직접 코 안에 넣는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12년 이상 눈·코·귀 질환 환자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해온 곽계원(사진) 백동한의원(구 상림한의원) 원장은 내복약보다 외용약을 위주로 해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한다. 코 안에 넣는 한방 삽입약인 통비환(通鼻丸)이 그것으로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약물이 직접 코 점막에 작용함으로써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부 한 연구기관에서는 통비환이 순수 천연 한방 복합제재이지만 약 99%의 항염증 활성을 갖고 있으며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곽 원장은 통비환 외에도 코 건조증에 바르는 통비연고(通鼻軟膏), 뿌리는 상림수(尙林水)와 같은 외용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백동한의원은 어린이나 성인들의 비염·알레르기성 비염·축농증 등의 코 질환을 비롯한 중이염·외이도염 등의 귀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제9기
한국 대학생 지식멘토링(일반/캠프)
참여 대학생 나눔지기(멘토) 모집

- **신청자격** 사업 참여대학 소속 대학(원)생 (휴학생 가능) ※ 참여대학 목록은 포스터 하단 참조
- **신청기간** 2014년 6월 1일 (일) ~ 6월 15일 (일)
- **활동내용** 하계 방학 (6월 말~8월) 중 초·중·고 학생들과 학습지도 및 멘토링
  [일반 : 개별 활동 / 캠프 : 팀별 활동]
- **활동혜택** 멘토링에 필요한 교통비, 교재·교구비 등 활동 경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활동 확인서 발급
  재단의 지도자급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시 우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공지사항 참조
- **문 의 처** 나눔봉사부 학생봉사팀 02)2259-2649, 2140, 2143 / mentoring@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1599-2290

9기 참여 대학 목록

〈일반〉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캠프〉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춘천교육대학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역경 넘어 희망 본 데뷔 12년 스타

'극강 존재감' 강지환… '세대 교체' 이다희… '연기 재평가' 구혜선

2002년 메트로신문 창간과 함께 데뷔해 어느덧 12년이 흘러 훌쩍 성장한 스타들이 있다. 역경에도 희망을 놓치 않고 전진해온 이들은 더 큰 목표를 안고 안방을 질주 중이다.

강지환·이다희는 KBS2 월화극 '빅맨'의 남녀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안정된 연기로 극을 주도한다. 구혜선은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데뷔 12년 만에 연기력을 재평가받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진짜 '빅맨' 강 지 환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 호러 쇼'로 데뷔했다. 드라마 '여름향기'(2003)와 시트콤 '논스톱'(2003) 등에 조연으로 등장했다.

2005년 MBC 일일극 '굳세어라 금순아'는 그의 대표작이다. 나금순(한혜진)의 재혼남 구재희 역을 맡아 주연으로 거듭났다. MBC 연기대상 신인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큰 인기를 누렸다. 2008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로는 각종 영화제 신인남우상을 휩쓸었다.

2012년 소속사 분쟁에 휘말리면서 배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지난해 복귀작 '돈의 화신'으로 전환점을 마련했고 '빅맨'으로 1년 만에 돌아왔다. '빅맨'에선 김지혁으로 분해 코믹부터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을 연기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빅맨'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시장 판에 있던 양아치가 한 조직을 아우르는 경제적 리더가 된다"며 "리더의 힘은 재능이나 지식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성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김지혁은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모두 알게 돼 복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발하는 감정 연기가 '빅맨'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미니시리즈 첫 주연 이 다 희

강지환과 함께 '빅맨'에 출연 중인 배우 이다희는 드라마 여자 주인공 세대교체를 이끌 차세대 주자다. 이다희는 '빅맨'을 통해 처음으로 미니시리즈 주연을 맡았다. 2002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그는 다수의 작품에서 조연을 맡았고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서도연 검사, KBS2 '비밀'(2013) 신세연을 통해 대표 서브 여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다.

'빅맨'에서 현성유통 경영지원팀 팀장 소미라로, 강동석(최다니엘)과 김지혁(강지환)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 연기를 하고 있다. '빅맨'의 삼각 관계가 통속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다희가 극에서 취하고 있는 무게 중심에 있다. 소미라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김지혁의 순수함과 열정은 오래된 연인이자 냉철한 강동석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미라의 입장에 공감하게 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그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보다는 강지환과 최다니엘을 받쳐주면서 작품에 묻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욕심 내는 순간 혼자 동떨어지게 된다. 조금씩 꺼내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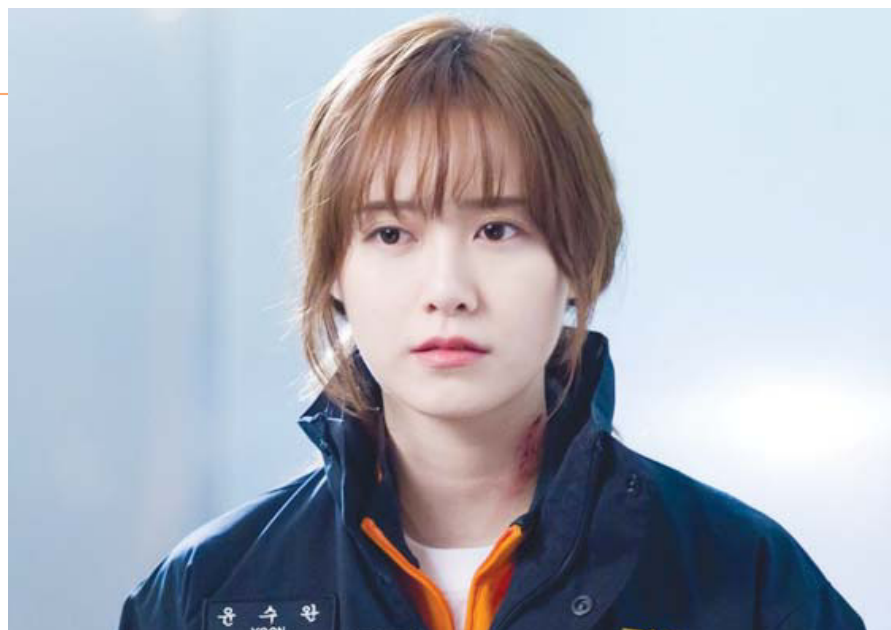
◆ 연기논란 종식 구 혜 선

배우 구혜선은 '얼짱 열풍'이 일었던 2002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2004년 '논스톱5'에서 하얀 피부와 큰 눈망울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KBS1 일일극 '열아홉 순정'(2006), SBS '왕과 나'(2007)로 주연을 맡았으며 KBS2 '꽃보다 남자'(2009) 금잔디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연기 이외에도 작가·작곡가와 영화감독으로 활약하며 다재 다능한 예술인의 면모를 보여왔다.

정작 연기력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탐탁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한결같은 표정과 과장된 코믹 연기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데뷔 12년 만에 구혜선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 SBS '엔젤아이즈'에서 구급대원 윤수완을 연기하고 있는 그는 안정된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첫사랑인 박동주(이상윤)를 향한 설렘과 현재의 애인인 강지운(김지석)을 떨쳐내야 하는 미안함을 동시에 표출한다.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꽃보다 남자'를 쓴 윤지련 작가와 이번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됐다"며 "오버하는 연기와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따뜻한 금융

그 돈은 어떤 돈인데요

약간의 자존심, 접은 꿈과 맞바꾼 월급
용돈에서 아껴둔 비상금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따낸 경쟁프로젝트 보너스…

당신의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잘 알고 있기에
신한은 금융상품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환경이 급변해도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투자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2014 신한 중위험 중수익 프로젝트]

신한명품 첫스텝 85 지수형 ELS

- 첫 조기상환 조건을 85%로 낮춰 빠른 수익상환 기대
- 코스피200, 홍콩H지수, 유로스탁스50 기초자산으로 높은 안정성 추구
- 구조에 따라 연 5~8% 수준의 시중금리+α 수익률 기회 제공

상담전화:1600-0119/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참조

판매사 신용등급 : 신한금융지주AAA(한기평,2014.1)의 100%자회사 / 신한금융투자 AA(한기평,2013.12)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 부도 및 파산 시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기시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676호 (2014-04-21~2015-0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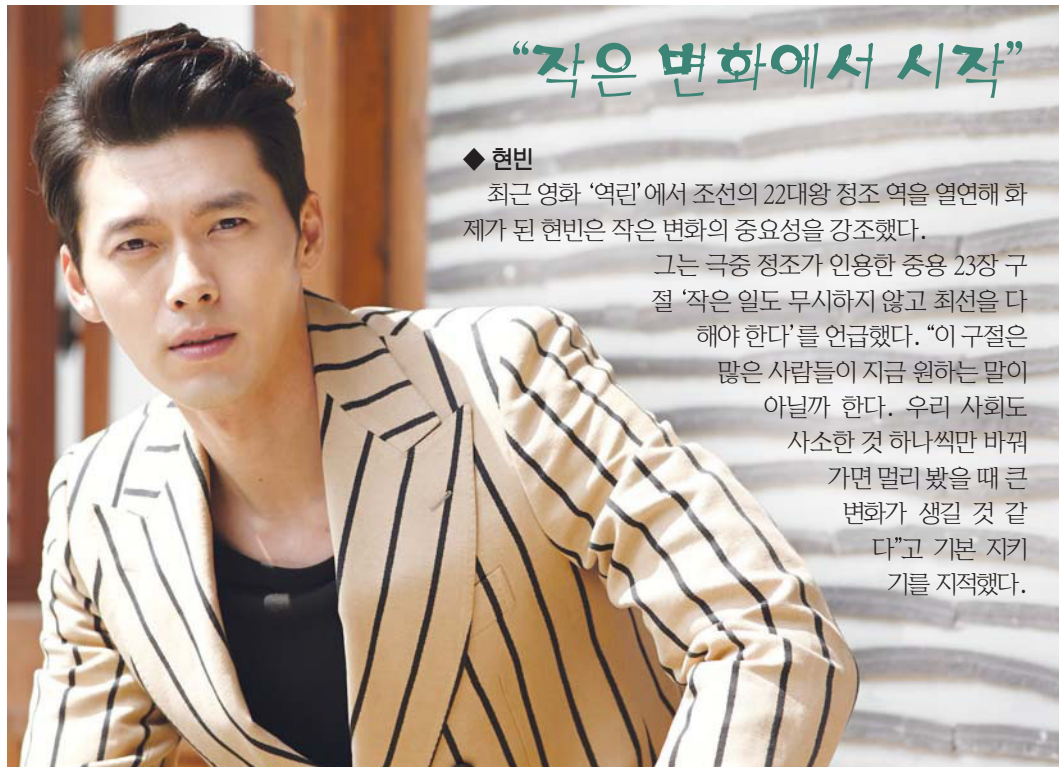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 반. 그동안 대한민국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멈춰 있었다. 연예계도 예외는 아니다. 연예인 대다수가 각종 행사 일정을 취소하며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슬픔과 분노를 가슴 한 켠에 묻고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이같은 아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작품과 기부 등으로 위로를 전하는 연예인에게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물었다.

/탁진현·전효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스타들이 말하는 '희망의 미래'

"작은 변화에서 시작"

◆ **현빈**

최근 영화 '역린'에서 조선의 22대왕 정조 역을 열연해 화제가 된 현빈은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극중 정조가 인용한 중용 23장 구절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를 언급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도 사소한 것 하나씩만 바꿔가면 멀리 봤을 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기본 지키기를 지적했다.

"부정·부패 척결해야"

◆ **유준상**

두 아이의 아버지인 유준상은 세월호 사고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으로 꼽았다.

공교롭게 상영 중인 영화 '표적'에서 부패 경찰 송반장을 연기한 그는 "자식을 가진 아빠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를 보면서 경악했다. 송반장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반장을 연기했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분개했다.

"이기적인 욕심 버리자"

◆ **송승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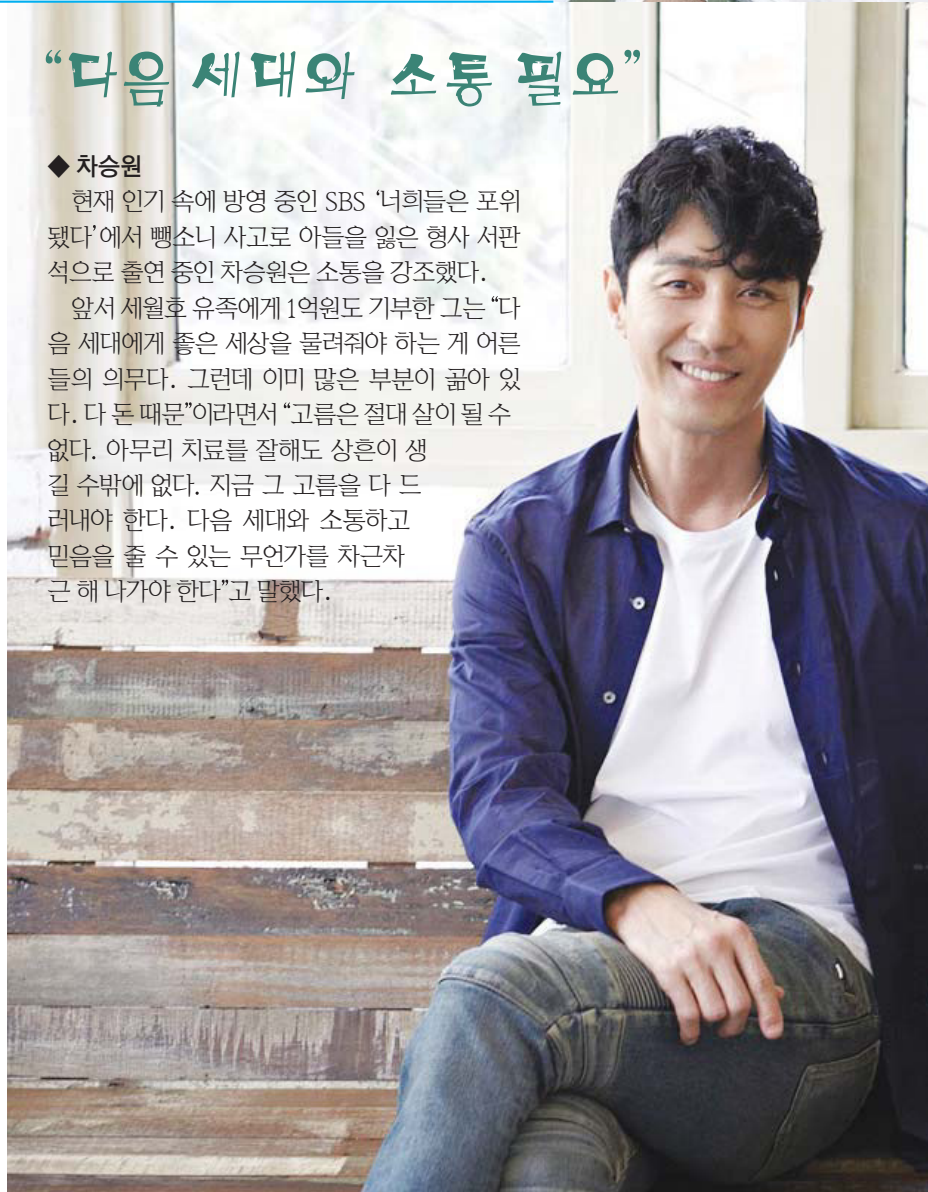
세월호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앞장서서 구세군에 1억원을 기부한 송승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다.

그는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 같다. 하나를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면서 "나 역시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뭐라고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 아등바등하며 제 욕심만 차리기보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더 행복해진다고 하더라. 조금 더 아래를 보면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 세대와 소통 필요"

◆ **차승원**

현재 인기 속에 방영 중인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뺑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은 형사 서판석으로 출연 중인 차승원은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에게 1억원도 기부한 그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의무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부분이 곪아 있다. 다 돈 때문"이라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상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고름을 다 드러내야 한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합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2.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3. 적용대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4.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할인율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은 것 적용)	

5.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신청서』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첨부)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

※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문의

6.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제 참여신청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 (사업주) →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 산재보험료율 할인적용 (근로복지공단)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료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수 많은 골수 팬을 양산한 원조 마니아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2014년 응사 마니아를 탄생시킨 '응답하라 1994'

2002·2014 안방극장 평행이론

'네 멋대로 해라'·'야인시대'·'겨울연가' '응답하라 1994'·'감격시대'·'상속자들'

12년 전과 올해 비슷한 소재 드라마 눈길

2002년 메트로신문이 처음 독자들을 만났던 해 안방극장에는 좋은 드라마가 넘쳐났다. 한류 열풍을 몰고 왔던 KBS2 '겨울연가', 마니아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회자되는 MBC '네 멋대로 해라', 대박 시청률의 SBS '야인시대' 등 다양한 드라마들이 있었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드라마들이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을까.

◆ 덕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드라마

2002년 덕후(마니아라는 뜻으로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표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한 편이 탄생했다. MBC '네 멋대로 해라'(이하 '네멋')는 마니아 사이에서 웰메이드 드라마로 인기였다.

'네멋'은 가난한 스턴트맨 고복수(양동근)가 학력부터 집안까지 전혀 다른 여자 전경(이나영)을 만나 사랑에 빠진 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줄거리만 본다면 흔해 빠진 신파처럼 보이지만 '네멋'은 극본·연출·음악·연기까지 4박자가 완벽히 맞아 떨어지며 특별한 드라마가 됐다.

덕후들은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촬영장을 방문하거나 제2의 창작물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한다. 덕후들이 사랑하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선 보는 것 이상의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네멋'은 완벽한 덕후용 드라마였다. 극중 복수와 경이 자주 만나는 버스 정류장은 팬들 사이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명소가 됐다. 이곳은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팬들의 메모가 꾸준히 붙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그로부터 12년 뒤 또 하나의 덕후용 드라마가 나타났다. tvN '응답하라 1994'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12년 1세대 아이돌 '빠순이'의 이야기를 그린 '응답하라 1997'이 인기를 끈 뒤 지난해 말 후속작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도 제작됐다. 특히 '응사'의 인기는 해를 넘어 올해까지 이어졌고 정우·유연석·김성균 등 오랜 기간 무명시절을 보낸 배우들을 스타 반열에 올렸다.

하지만 '응사'가 '네멋'을 따라잡기엔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1990년대 대중문화가 없었다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응사'는 어느새 여주인공 나정(고아라)의 남편이 누구인지에만 초점을 맞춰 극 전체의 개연성을 떨어뜨렸다. OST 역시 90년대 음악을 리메이크해 당시의 느낌을 살린 것은 장점이지만 창작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 남자들의 '의리'는 계속 된다

2002년엔 월드컵 말고 또 다른 열풍이 있었다. 바로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다.

'야인시대'는 '귀가시대'로도 불리며 50%에 육박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철저하게 남성 시청층을 타겟으로 제작된 '야인시대'는 매력 있는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 등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드라마로 군림했다. 특히 청년 김두한을 연기했던 안재모는 그 해 연기대상까지 수상하며 최고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2014년 KBS2 '감격시대'는 '야인시대'에서 주변 인물이었던 시라소니를 주인공으로 했다. 총 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된 '감격시대'는 한류스타 김현중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김갑수·최일화·김성오 등 탄탄한 조연 배우들을 기용했지만 평균 시청률은 10%대에 그쳤다. 그 배경엔 경쟁작 SBS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다소 밋밋한 전개와 캐릭터의 매력이 부각되지 못한 점 등도 부진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야인시대'가 김두한의 '도장깨기'를 주요 스토리라인으로 잡아 시원한 액션신과 카타르시스를 담았다면 '감격시대'는 시라소니의 성장기를 주된 이야기로 그려 '야인시대'같은 작품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겐 심심한 드라마가 됐다. 하지만 아이돌 출신으로 연기력 논란이 따라붙었던 김현중이 '감격시대'를 통해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 진정한 배우로 발돋움했단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한류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

KBS2 '겨울연가'는 윤석호 PD의 계절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배용준·최지우·고박용하 등을 한류 스타로 만들었다. '겨울연가'발 한류 열풍은 가요에 국한됐던 인기를 드라마·영화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내 배우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해 '겨울연가'가 몰고 온 한류열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SBS '상속자들'은 이미 한류스타였던 이민호와 신예 김우빈을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김우빈은 이번 작품을 통해 '신 한류 4대 천황' 중 한 사람으로 이민호·김수현·이종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남자 스타를 앞세운 멜로물이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대부분의 한류 콘텐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류열풍이 3세대, 4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멜로물을 넘어서 액션, 추적, 미스터리 등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남성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불러모은 '야인시대'(2002·오른쪽)와 '감격시대'(2014)

KBS 사장 퇴진 요구 총파업

지방선거·월드컵 방송 차질 전망

KBS 양대 노조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9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KBS 내 모든 노동조합과 직능 협회, 부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모두 뜻을 모아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 투쟁이다.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을 모두 충족시킨 명백한 합법 파업"이라며 파업을 선언했다.

두 노조의 공동 파업은 2010년 새노조가 분리돼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기술·경영 직군 중심으로 2500여 명이 소속된 1노조와 기자·PD직군 중심의 1200여 명이 소속된 새노조가 공동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방송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6·4 지방선거 방송과 브라질 월드컵 방송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공동 파업은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처리를 다음달 4일로 연기한데 따른 것이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BS본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해임제청안을 두고 9시간여 격론을 벌였으나 표결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사측은 "회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과 관용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돼 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KBS 노조. /연합뉴스

이진욱·공효진 "우린 연인"

최근 교제 시작… 심야 데이트 모습 포착

배우 이진욱(왼쪽 사진)과 공효진(오른쪽)이 열애를 인정했다.

29일 두 사람의 소속사는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한 결과 이진욱씨와 공효진씨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단계"라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 봐주시길 바라며 배우로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진욱과 공효진은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영화 관계자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을 이어왔고 패션에 대한 관심사가 동일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효진은 현재 조인성과 SBS 새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에 한창이다. 이진욱은 tvN 드라마 '삼총사' 출연을 준비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레아 세이두, 야수 사로잡는 미녀

판타지 로맨스 '미녀와 야수'서 여주인공 연기

프랑스 출신 배우이자 모델인 레아 세이두가 판타지 로맨스 영화 '미녀와 야수'(6월 19일 개봉)에서 야수의 심장을 녹이는 미녀 벨 역을 맡았다.

'미녀와 야수'는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야수와 그를 사랑한 아름다운 벨의 운명적이고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뱅상 카셀과 세이두의 만남으로 관심을 끈다.

세이두는 오묘한 분위기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다. 2006년 '나의 친구들'로 데뷔한 그는 국내에서 흥행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미드 나잇 인 파리'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 매력적인 레즈비언 예술가 엠마를 연기했다.

세이두는 넘치는 매력으로 프라다, 생 로랑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사랑도 받고 있다. 유명 프랑스 영화사 창립자의 손녀로 프랑스 대표 '엄친딸'이기도 하다.

'미녀와 야수'의 감독인 크리스토프 갱스는 "현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이며,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배우다. 아버지에게 헌신적이고, 찬란하면서도 안쓰러운 존재와 사랑을 느끼는 벨의 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세이두는 "나를 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역할을 수락하는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건 원작이었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미녀와 야수'의 레아 세이두.

월드스타 싸이 컴백 초읽기

내달 스눕독과 美 방송 출연 신곡 프로모션 돌입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오는 6월 컴백할 전망이다.

UPI통신 등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6월에 미국 ABC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의 '게임 나이트' 편의 주요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마다 '게임나이트'라는 특집 코너를 만들 계획인데 여기에 싸이는 유명 래퍼 스눕독과 함께 출연한다.

스눕독은 올해 초 한국에서 싸이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있어 업계는 이번 미국 방송 출연을 싸이의 신곡 프로모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싸이의 컴백설은 올 초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으며 지난 4월에도 제기됐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등이 일어나며 싸이의 컴백 일정은 하염없이 연기됐다.

싸이가 6월 컴백을 확정 지을 경우 지난해 4월 발표했던 '젠틀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가요계에 복귀하는 것이다. 싸이는 신곡을 전세계에 발표하는 월드와이드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두 청년의 의기투합

그 광고판을 본 것은 2년 전이었다. 서울 안국역에서 일본문화원 쪽으로 나가는 4번 출구 아래 가로 4미터, 세로 2미터짜리 광고판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한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대형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00번째 수요시위를 맞아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 동상'을 모델로 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녀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실제 눈물이 아니라 세로로 쓴 한 마디의 문장이었다. 바로, "일본은 사죄하라"

자비 110만 원을 들여 이 광고를 낸 이들은 28살 동갑내기 김요셉 씨와 강민석 씨였다. 광고계에서 일한다는 두 청년은 평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물론 근현대사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의 삶을 듣게 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찾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은 커녕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알게 됐고, 과연 그것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인가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두 청년. 그들은 고민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 바로 광고를 통해 그러한 무책임과 무성의를 고발하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광고판은 그렇게, 일본문화원으로 통하는 길목에 나붙었다.

물론 광고비를 계속 낼 수는 없는 처지여서 광고판은 얼마 안가 결국 내려졌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전하다. 일본 정부도 묵묵부답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라고 해서 나을 것도 별로 없다.

'위안부 소녀' 광고판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세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지금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첫 시위를 시작했으니 오는 수요일이면 무려 1000번 하고도 129번째 수요시위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3		8	2
								4
			5		2	6		
6		2	3			7	4	8
9								5
5	7	3			8	2		6
		7	8		6			
3								
8	9		7			4	5	

5							4	
				4	7		2	
				2	8		6	
3	1				4	6		2
4	5						8	1
8		2	7				3	9
	7		4	5				
	8		2	6				
	9							5

스도쿠 정답

1	4	9	6	7	3	5	8	2
2	6	5	1	8	9	3	7	4
7	3	8	5	4	2	6	1	9
6	1	2	3	9	5	7	4	8
9	8	4	2	6	7	1	3	5
5	7	3	4	1	8	2	9	6
4	5	7	8	3	6	9	2	1
3	2	1	9	5	4	8	6	7
8	9	6	7	2	1	4	5	3

5	2	8	3	9	6	1	4	7
9	3	6	1	4	7	5	2	8
7	4	1	5	2	8	9	6	3
3	1	7	9	8	4	6	5	2
4	5	9	6	3	2	7	8	1
8	6	2	7	1	5	4	3	9
2	7	3	4	5	1	8	9	6
1	8	5	2	6	9	3	7	4
6	9	4	8	7	3	2	1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업하는 노래방 잘될까요 2년정도 유지하고 결정을

달별사랑 남자 63년 8월27일 양력 낮12시-1시

Q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안 가시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동업하고 있는데 그동안 빌려 쓴 돈도 많아 어떻게 갚을지도 걱정입니다. 와이프는 대출받아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친언니랑 동업 식으로 해서 수입을 나누는 것이라 수월하지 않네요.

A 사주구조상 어머니의 건강은 올해 술자월(음력 戌子9,11月)이 고비가 되며 2015을미(乙未年)에 식재(食財)가 멸하게 되어 위험 합니다. 병원과 장례식장 선택에서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부인이 하는 노래방은 8월 지나는 가을부터는 잘될 수 있으나 지금부터 계산은 명확히 하십시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체질상 안 맞는 직업이겠으나 타인과 동업을 하므로 상대의 운과 합작을 하여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놀던 물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현 업종은 2년간은 잘 나갈 수 있으니 그동안의 부채를 갚아갈 수 있습니다. 2년 후 다시 사업을 질질 끌려가면서 혹시나 하지 않도록 차후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귀는 남친마다 오래 못가요 배우자 운 좋아, 저축습관 필요

아소르 여자 90년 8월 6일 오후 5시 46분

Q 애교 있는 성격 탓인지 매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다들 6개월을 못 갑니다. 뭐 요즘에야 6개월 사귀는 사람 많겠지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매번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헤어집니다..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까 사주가 뭐가 있나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A '초목이 물을 만난격'이니 운기가 화창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좋으니 너무 염려 하지 않도록 하세요. 내년에 범띠생과 연분이 있으나 헤어지고 2016년 지나야 성혼에 이릅니다. 음력 3.7.11월생은 피하도록 하세요. 영리하고 재주가 있으며 선한성격의 소유자로 결혼 후에 더욱 아름다워지고도 이성이 따르게 되니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참고하십시오.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의 보필로 안정을 찾으며 뒤늦게 학문에도 열심이고 남으로부터 어려운 때 도움도 받는 길명입니다. 다만 지구력이 약하고 사치와 낭비성도 있는데 집을 장만할 때 은행 가까이 살아서 저금하면서 사는 습관을 지금부터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30일 (음 5월 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녀에 짐 되는 일은 벌이지 말라. **60년생** 비밀은 탄로가 난다. **72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빈축 살 일은 삼가라. **84년생** 부모를 기쁘게 할 일이 생긴다.

49년생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다. **61년생** 배우자와 생각이 달라 우울하구나. **73년생** 무리하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85년생** 자신엔 엄격하고 타인엔 관대하라.

50년생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아라. **62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살맛이 난다. **74년생**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의사표현 분명히 하라. **86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한다.

51년생 욕심 부리면 상처받는다. **63년생** 취중에 덤비는 사람은 무시하라. **75년생** 공들인 만큼 결과는 좋다. **87년생** 사랑에 장애물이 생겼으면 조언을 구하라.

52년생 불리해도 신용 지켜라. **64년생** 막힌 일은 뚫릴 기미가 보인다. **76년생** 칭찬은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라. **88년생** 정성을 들인 일은 칭찬이 쏟아진다.

53년생 기다리던 소식 도착한다. **65년생** 배우자의 감정변화를 잘 살펴라. **7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어깨가 가벼워진다. **89년생** 직장생활은 매일 웃을 수 없는 법~.

42년생 소신도 좋지만 눈치도 살펴라. **54년생** 추진한 일은 가속도가 붙는다. **66년생** 인허가 문제는 잘 풀리니 걱정 말라. **78년생** 일이 싫증이 나도 참아야 한다.

43년생 환자는 병세 호전된다. **55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준비에 만전 기하라. **67년생** 상황은 어렵지만 인맥 덕을 본다. **79년생** 체면 때문에 모르는 일 아는 척 말라.

44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56년생** 여유 너무 부리다 손해 본다. **68년생** 부부싸움은 한 발만 양보하면 편안~. **80년생** 주는 것만큼 돌려받는다.

45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7년생** 애로가 많으니 마음 잘 다스려라. **69년생** 자녀가 생각도 못한 고민거리 안긴다. **81년생** 직장문제는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46년생 부부가 이심전심이로구나. **58년생** 집안에 행복바이러스가 가득하다. **70년생** 일이 자꾸 실타래처럼 엉켜 아휴~. **8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47년생 고민은 사라지고 편안 찾아온다. **59년생** 편안 하다고 방심은 말라. **71년생** 집안에 작은 변동이 일어난다. **83년생** 두드리면 열리니 도전 멈추지 말라.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추억을
지나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살던 옥수역

첫직장이 있던 충무로역

친구들과 즐거웠던 신촌역

서울메트로 1234 콜센터 1577-1234

Seoul Metro